

# 홍순흥 제7대 생활체육회장 당선

## 고성군생활체육회 지난 18일 회장 선거 ... 홍순흥 20표, 지명호 11표

고성군생활체육회 제 7대 회장으로 홍순흥 배구연합회장이 선출됐다.

군 생활체육회는 지난 18일 오전 종합운동장내에 위치한 생활체육회 사무실에서 제7대 회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기호 1번 홍순흥 후보가 20표를 얻어 11표를 얻는데 그친 기호 2번 지명호 후보를 누르고 새 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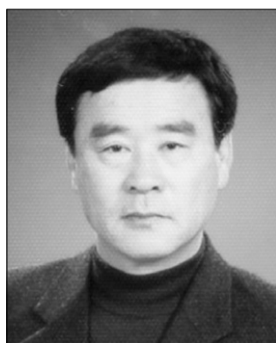
이날 선거에는 투표권이 있는 32명의 이사 가운데 31명이 참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신임 홍순흥 생활체육회장(64

세, 사진)은 “저를 지지하고 성원을 보내준 각 생활경기단체 이사님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임기 동안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써 주민들의 화합과 건강증진에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임 홍순흥 회장은 춘천 출신으로 춘천교육대학을 졸업하고, 1969년 천진초교를 시작으로 도내에서 초등학교 교사와 교감, 교장을 역임했다.

특히 교직생활 중 천진초교 야구부 창단 및 영동지역 야구 우승, 제3회 강원도 초등학교 야구 대회 지도상, 간성초등학교 야구



홍순흥 고성군생활체육회장

부 강원소년체전 우승 등의 기록을 남겼으며, 체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최광호 기자

## 임산·수유부 우울증 교육

### 고성군보건소 80명 대상

고성군 보건소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농업기술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임산부 및 수유부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산부 및 수유부 산후 우울증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립춘천병원 강석훈 정신과장이 강사로 초빙돼 우울증 원인, 증상 및 치료에 대한 방법 등에 대해 강의하고, 산후 우울증 예방법, 주부스트레스, 불면증 관리 등 우울증 유형에 대해 설명했다.

또 우울증에 대한 강의 후 참가자를 대상으로 선별 검사 후 개별 면담도 실시했다.

고성군보건소 박옥희 건강관리담당은 “임산부 및 수유부의 정신 건강증진을 위해 우울증의 올바른 이해와 대처방법이 필요하다”며 “교육 및 선별검사를 통해 우울증의 조기 진단과 치료로 정신보건을 실시한다”고 했다.

박승근 기자



## 동계아시안게임 스키 메달리스트들 군청 방문

지난 1월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제7회 동계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한 정동현(23세)과 정혜미(22세, 동메달), 정소라(21세, 은메달) 등 고성고 출신 스키 3인방이 지난 16일 고성군청을 방문했다.

박승근 기자

## 가족이 함께 머그컵 만들기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난 16일 오후 7시 여성회관 2층 강의실에서 관내 거주 11가족 40명을 대상으로 도자기 공예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가족이 함께 만드는 나만의 머그컵’이란 주제로 가족간의 화합과 자기만의 개성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행사로 진행됐다.

박승근 기자

## 고성을 빛낸 호국인물 [3]

### 독립운동가 이 동 진(李東振)

1925년 6월 15일 ~ 1973년 5월 25일

본적은 강원도 간성군 군내면 하리 15번지이다. 이동진 학생은 개성 한영서원에 다니다가 고향으로 내려와 1919년 3월 17일 고성군 간성읍(杆城邑)에서 함기석(咸基錫)과 함께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고 「지금 전국 각지에서 독립운동을 일으키니 문명교육을 받은 자들은 누구라도 독립을 위하여 만세를 부르자」는 내용의 선전문을 만들어 간성보통학교 4

학년 교실 입구의 벽에 붙여 동교 학생 150여 명을 규합, 이들과 함께 간성을 장날에 만세시위를 전개하는 등 주동자로 활동하다가 일경에 피체되었다. 그 당시 독립운동으로 체포된 사람과 같다. 주모자主謀者 승려僧侶김백운 金白雲, 의사醫師함성희咸聖熙, 인쇄물 밀포자印刷物密布者 농업農김응섭金應涉, 학생學生임갑용任甲龍, 학생學生이동진李東振, 학생學生함기석咸基錫, 선

동자煽動者 농업農함청일咸淸一, 구장區長박종진朴鍾鎭, 학생學生이내구李乃九, 학생學生김영집金永集 등이었다. 동년 5월 12일 함흥지방법원 원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6월 2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이동진이 1970년 8월14일 생존 당시 속초시 영랑동 456번지에 살고 있었으며 일제(日帝)의 고문에 타격을 받아 정신이 혼미하여 사실도 일정하게 말하지 못하여 분명한 내용을 파악할 도리가 없었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出典：『大韓民國 獨立有功者 功勳錄』

第 11卷, 國家報勳處, 1994年, p.207.

註：△만세시위운동 關聯 判決文 (1919. 6. 25. 京城覆審法院 형공(刑控) 제477호) △江原道抗日獨立運動史(I) (光復會江原道支部, 1991. 8. 15) 79面 △江原道抗日獨立運動史(IV) (光復會江原道支部, 2004.12.) 223面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607面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9卷 246面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3輯 92面 △每日申報(1919. 5. 22) △이동진(李東振 ; 69세) 속초시 영랑동 456 (1970년 8월 14일 증언)

〈고성향토문화연구회 제공〉

(010-5373-2156)